

## 잠잠했던 광주·전남에 '무더기 확진'...불안감 확산

보건당국 코로나 방역 비상...감염경로 찾기 총력

“방심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야”

“잠잠하던 광주와 전남에서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경로도 밝혀지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요.” 주말사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다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민들이 불안감을 표출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 현재 광주에서 5명, 전남에서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60대 부부가 코로나19 광주 34·35번 확진자가 됐다. 이어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60대 남성, 6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36·37번 확진자가 됐다. 또 27일 영국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광주 38번 확진자가 됐다.

현재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에 대한 방역작업을 벌이는 한편 감염경로 등에 대해 파악 중이다.

전남에서는 전남 60대 부부와 손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남 21·22·23번 확진자가 됐다. 이들은 목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광주 34번 확진

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전남에서는 전남 멕시코에서 귀국한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24번 확진자가 됐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과 접촉한 지역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광주와 전남에서 주말 새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말을 맞아 모처럼 가족과 함께 근교 드라이브를 계획했던 주부 이모씨(48·광주 동구 내남동)는 “주말에 시간 여유가 생겨 외곽으로 나가 점심도 먹으러 계획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취소했다”고 전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박모씨(21·여)는 “광주에서는 코로나19가 잠잠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무더기로 발생해 걱정”이라며 “휴일인데 집밖에 나가기가 두려워진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당장 월요일 개학을 걱정했다.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위모씨(48·여)는 “목포와 광주에서 확진자가 한

꺼번에 나왔다 소식에 점점 우리 주변으로 조여온다는 느낌이 든다”며 “초중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입장에서 정말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걱정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0·여)는 “요즘 광주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를 다니는 것이 많이 느슨해졌다”며 “당장 월요일부터 출근을 해야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이어 “확진자가 나와야 마스크 쓰고 다니는 습관을 저부터 고쳐야겠다”며 “시민들 모두 코로나 확산이 안되게 긴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목포 거주 서모씨(50)는 “3개월 가까이 전남에서 코로나 확진환자가 나오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여러명이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방심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도는 확진자들이 다녀간 곳에 대한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는 한편 접촉자들에 대한 검체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낱자를 확대해 이동동선을 확인하는 등 이들의 감염경로를 확인하는 데 총



목포 하당중학교 1학년 학생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전남 23번)로 판명된 가운데 28일 오전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력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전남 23번 확진자가 다닌 중학교에 대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체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광주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40)는 “확진자들에 대한 동선이 나오면서 혹

시 내 주변 사람들이 동선에 있었을까 연락을 하게 됐다”며 “가족들에게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철저히 지켜달라고 서로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도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계속 확산되는 것인지 참 걱정된다”고 했다.

조인호·김정환 기자

## 담양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대나무 '세계 최초'

농업 자연 친화적인 토지이용  
전통 농업기술 등 가치 인정

담양의 대나무밭이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28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대나무밭 농업시스템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운영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과학자문그룹은 지난 27일 담양 대나무밭 농업의 자연 친화적 토지 이용, 전통 농업기술, 아름다운 농업문화경관, 죽산제 등 문화·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세계 각지의 전통적 농업활동과 경관, 생물다양성, 토지 이용 체계를 선정해 보전하고 차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에 유엔식량농업기구 주관으로 창설한 제도로

아프리카, 남미 등 21개국에서 57곳이 등재돼 있다.

담양군 354개 자연마을 대다수에 조성된 대나무밭은 죽제, 죽순, 차나무, 버섯 등 1차적인 부산물을 제공하고, 대나무밭 주변에 형성된 수자원은 예로부터 농농사에 활용돼 왔다.

군은 이번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담양 대나무의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제적인 대나무 도시로서 담양이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 “해남 달마고도 한번 걸어볼까”

해남군, 7월4일부터 코스 나눠 트레킹가이드와 출발

해남군은 오는 7월4일부터 365일 달마고도 위킹데이 ‘혼산족을 위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해남 달마산 일대인 달마고도를 걷는 365일 위킹데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혼산족’과 초보 등산객 등을 위해 개발된 걷기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확산 이후 단체 관광은 크게 줄어든 반면 해남 주요 산과 달마고도 일원의 등산, 트레킹 등 비대면 야외 운동의 인기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프로그램은 7월4일부터 8월29일까지 매



주 토요일 미황사 일주문 앞에서 트레킹가이드와 함께 출발하며, 낱짜별로 코스를 정해 트레킹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전을 위해 차수별로 2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일차별 걷기코스 문의와 참가신청은 해남군 홈페이지 및 관광과 축제팀로 하면 된다.

#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